

오창록,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7번째 한라장사 등극

설날 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결정전서 우형원에 3-1 승리
생애 첫 설날 우승 차지하며 개인 통산 7번째 한라장사 등극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7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따냈다. 오창록은 13일 경상남도 함천군 함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설날 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이하) 결정전(5전3승제)에서 우형원(용인백옥쌀)을 3-1로 꺾었다. 이로써 오창록은 생애 첫 설날 대

회 우승을 차지하며 개인 통산 7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오창록은 16강에서 베테랑 손종희(울산동구청)를 누르고, 8강에서 한창수(정읍시청)를 제압했다. 준결승에서 박성윤(의성군청)까지 단 한 번의 패배없이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오창록은 결승에서 빗장걸이로 6초 만에 첫 판을 따냈다. 두 번째 판을 우형원에 빼앗겼지만 세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다. 오창록은 마지막 판에서도 우형원을 밀어치기로 쓰러뜨리며 우승을 확정짓고 포효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오창록이 13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승리했다. (사진=대한씨름협회 제공)

손흥민 출혈에 빨난 무리뉴 감독 "경고감이야"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발목에 피가 나



토트넘의 손흥민(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를 패한 후 조제 무리뉴 감독의 위로 받으며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0-3으로 완패해 리그 9위로 내려앉았다.

조제 무리뉴 토트넘 핫스퍼 감독이 손흥민(29)의 발목 출혈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다.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지만, 토트넘의 0-3 완패를 막지 못했다.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이날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상대의 거친 압박에 고전했다. 지난 11일 에버턴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120분 승부를 치르느라 체력 소모가 컸다. 당시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사흘 만에 치러진 맨시티 원정에선 발이 무거워 보였다. 여기에 무리뉴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에 무게를 둔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손흥민도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 위험에도 노출됐었다. 후반 33분 맨시티 수비수 중앙 칸셀루와 경합 과정에서 발목을 차여 쓰러졌다. 손흥민은 큰 고통을 호소했고, 그의 발목도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심판은 칸셀루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화가 난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칸셀루는 경고감이야. 손흥민의 발목에 출혈이 있었다. 칸셀루의 축구화 스텀드가 손흥민의 발목을 가려줬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발목이 큰 부상 아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별은 새로운 시작 샌디에이고에서 만날 김하성-염경엽

프로에서 처음 맺은 사제의 인연이 바다 건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진다.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염경엽(53) 전 SK 와이번스 감독과 샌디에이고에서도 함께한다. 지난 시즌 뒤 포스팅을 통해 빅리그의 문을 두드린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으로 떠나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스프링캠프 준비에 돌입했다. 김하성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계속된다. 염 전 감독은 오는 22일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염 전 감독은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구단과 지도자 연수를 받기로 이야기가 됐다. 공공롭게도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으면서 또 만나게 됐다. 당초 6월쯤 출국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하성의 계약과 함께 구단의 요청도 있어 앞당겨 출국하게 됐다. 염 전 감독은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의 적응을 도우면서 트랙맨 등

예정이었다. 새 유격수를 찾아야 하는 사령탑의 눈에 유망주 김하성이 들어왔다. 프로 데뷔 첫 해 김하성은 1군에서 대주자, 대수비로 경험을 쌓았다. '주전 유격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이어졌다. 내야수 출신인 염 전 감독은 팀 훈련 시간에 앞서 김하성과 따로 수비 훈련을 직접 진행하는 등 유망주 키우기에 공을 들였다. 그리고 입단 2년 차였던 2015년부터 곧바로 유격수 자리에 김하성을 투입했다. 김하성은 그해 140경기에서 타율 0.290, 19홈런 73타점 22도루로 활약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이후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치며 성장을 거듭했고,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리그 대표 유격수로 떠올랐다.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도 염 전 감독의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김하성은 "염경엽 감독님이 '메이저리그를 보여 야구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당장 1군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어린 선수에게 염 전 감독은 더 큰 꿈을 꾸게 했다. 김하성은 "감독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어린 선수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뉴시스

매주 목요일·일요일 두차례씩 만나 2루 수비 훈련 중점 점검
오는 22일께 염감독 미국 출국해 샌디에이고에서 지도자 연수

있다. 김하성을 빅리그로 이끈 염경엽 전 감독이다. KBO리그에서 유격수와 3루수로 뛰었던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2루수 경쟁을 하게 된다. 염 전 감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김하성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김하성은 지난달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끝낸 직후부터 따로 염 감독을 만났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2루 수비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둘의 만남은 샌디에이고에서도

데이터 야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도 공부할 계획이다. 김하성에게 염 전 감독은 특별한 존재다. 김하성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염 전 감독에 대해 "최고의 스승님"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김하성은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입단 첫 해인 2014년 염 전 감독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넥센 유격수이던 강정호(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2014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도전 택한 양현종, 닷선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텍사스와 스피릿 계약으로 미국 진출...스프링캠프·시범경기에서 생존 경쟁

'꿈'을 택한 양현종(33)이 에이스 타이틀도 내려놓고, 도전자로 돌아간다. 2007년 2차 1라운드 1순위로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에이스 자리가 익숙하다. 2009년 12승(5패)을 올리며 처음으로 두 자릿 수 승리를 쌓은 양현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승을 달성했다. 2017년에는 20승(6패)을 수확하며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통산 성적은 425경기 147승95패9홀드 평균자책점 3.83. KBO리그 역대 다승 4위고, 현역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승리를 올린 투수다. '대투수'라는 별명도 그를 따라다녔다. 그런 그에게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이 마음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양현종은 2014시즌 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받자 한국 잔류를 택했다. 그러나 미련은 거두지 못했다. 결국 양현종은 2020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자 다시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상황은 2014년에 비해 나아질 게 없었다. 양현종은 2020년 11승10패 평균자책점 4.70으로 이전보다 부진한 성적을 냈다. 이십대 중반이던 그의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큰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겹쳤다.



그러나 양현종은 꿈을 접지 않았다. 원소속팀인 KIA와 협상도 접고 미국 진출에 집중했다. 선발 보장, 마이너리그 거부권 등 조건도 모두 포기했다. 오로지 도전을 향한 의지만 다졌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왔다. 양현종은 13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와 스피릿 계약을 맺었다. 스피릿 계약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을 달리한다. 메이저리그 승격 시 양현종은 130만 달러를 받고, 인센티브 55만 달러 등 최대 185만 달러를 수령한다. 보장된 건 없다. 안정적인 자리와 익숙한 환경, 보장된 연봉 등도 모두 내려놓고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생존 경쟁을 치른다. 당장 초청선수 신분으로 참가하게 되는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텍사스의 선발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양현종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텍사스는 카일 김슨, 마이크 폴터네비치, 아리하라 고헤이 등 3명이 선발로 내정됐다. 나머지 자리는 스프링 트레이닝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양현종은 조던 라일스, 데인 더닝, 카일 코디 등과 함께 4-5선발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된다. 스피릿 계약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다. KBO리그와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도 2016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스피릿 계약을 맺고 빅리그에 도전장을 냈다. 당시 이대호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264, 1홈런 7타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발산했고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정규시즌에서도 활약은 계속됐다. 플레톤 1루수로 기용되면서 104경기에서 타율 0.253, 14홈런 49타점의 성적을 냈다. 미국 진출이라는 첫 번째 산을 넘은 양현종은 이제 진짜 메이저리그의 꿈을 위해 더욱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다. 광장에서 훈련 중인 그는 비자문제가 협의되면 미국으로 건너가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양현종은 소속사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이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KIA팬뿐만 아니라 야구 팬들에게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래, 프로당구 최초 4관왕·3연속 우승 달성

교통사고로 팔·손목 통증
어려움 극복하며 진가 발휘

미래(25)가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LPBA 챔피언십 2021'에서 LPBA 최초 4관왕과 3연속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미래는 13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오수정을 3-2(11-7 4-11 11-8 4-11 9-6)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우승은 교통사고로 팔과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던 것을 이겨내고 이뤄낸 것이다. 미래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우승을 차지한 미래는 "3연속 우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학업을 마친 후 좋은 결과를 내서 스스로 대견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LPBA 웰빙챔피언십 4관왕이자



13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PBA 투어 제5차전 웰컴저축은행 PBA-LPBA 웰빙 챔피언십 대회에서 미래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PBA 투어 제공)

의 수상자는 LPBA 8강서 에버리지 1.375를 기록한 김가영으로 선정됐다. 준결승서 미래에게 아쉽게 패배

했던 김가영은 직전 대회에 이어 연속 LPBA 웰빙챔피언십 에버리지 수상자로 선정됐다.

뉴시스